

# 바다해설사를 아십니까?

- 도시와 어촌을 이어줄 새로운 인재들 -

최효정 |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마케팅실 과장

요즘은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해설사, 도슨트 등의 전문가 해설이 자연스럽다. 도리어 해설이 없으면 섭섭할 지경이다. 말 그대로 해설이 있는 관광이 대세이다.

이런 해설이 있는 관광 또는 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은 불과 10년 남짓이다. 과거의 관광은 대상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에 스스로 대견해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 즉 시각적인 탐닉에 집중했다.

대상이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는 관광의 형태는 문화유산 답사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답사기' 시리즈를 시작으로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해설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문화관광해설사'.

2001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를 대비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한국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사업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 변경하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지자체 홍보인력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숲해설사,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궁궐해설사, 갯벌생태안내인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해설인력들이 양성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 우리는 바다를 자주 찾는다. 탁 펼쳐진 풍경을 보기 위해, 맛있는 해산물을 먹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것이 현재 보통의 바다 즐기기다.

이것이 바다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일까? 우리 바다에 대해서도 누군가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

다면 어떨까?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어업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 바다해설사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바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또 그만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는 과학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하며 생활이기도 하다.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꾼, 길라잡이가 바로 ‘바다해설사’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바다해설사’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바다해설사 신규교육과정에서 2010년 1기 수료생 65명을 배출되었으며, 2011년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 총 38명 교육생 중 34명이 수료하였다.

바다해설사를 양성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일반도시민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바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어촌과 바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려 어촌과 어업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에메니티(Amenity)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도시민과 어업인간의 매개역할을 바다해설사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양성 취지이다.

양성된 바다해설사는 단순 포획 위주의 어촌관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늘어나는 해양생태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어촌, 어항 등 어촌관광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산문화와 바다생태를 해설하여 어촌과 수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바다해설사의 해설 범위는 어촌지역의 인문·자연 자원과 바다생물 관찰 안내, 기초 해양과학 등에 대한 해양생태 해설, 그리고 산업자원으로써의 수산업 등을 아우른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를 해설하기 위해 바다해설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해양과학, 인문, 어촌관광, 해설기법 등



2012년 바다해설사 양성 신규교육과정 교육

에 대한 이론교육 및 어촌관광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3개월간 100시간 가량의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강사진들은 대학의 교수진들과 지역의 수산관련 기관 연구진, 그리고 실무자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선발도 엄격하다.

수산, 관광, 해설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데 그 심사기준은 첫째, '바다해설사'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활동지속성, 둘째, 연안 시·군 거주 및 활동가능 여부, 셋째 관련 직종(수산, 어촌관광, 관광 등) 종사 경험 여부, 넷째 바다해설사 활동을 위한 지식 보유(작문, 컴퓨터 활용 등) 등이다.

이렇게 선발된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시험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증이 지급된다.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보수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면서 바다해설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2010년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바다해설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0명 가량이다.

바다해설사들의 활동 영역 역시 다양하다.

어촌체험마을, 어항 등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해설, 지역의 수산물·어촌관광 관련 축제의 해설활동, 방과후 어린이들의 해양생태교육을 위한 선생님, 그리고 지역의 숨어있는 어촌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알리는 콘텐츠 제공자, 어촌지역 개발자 및 지역 리더 등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해설사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바다해설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바다해설사 양성을 시작하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고, 연안 시군별로 1명 정도의 바다해설사가 활동하는 정도이다. 이마저도 정부, 지자체 행사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일반국민이 개인적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 바다해설사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다해설사 신규교육과정 수료생






바다해설사의 다양한 활동 모습

## 바다의 이야기꾼, 바다해설사를 만나려면...

우리에게 숨어 있는 바다의 보석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바다해설사를 앞으로는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40명 정도의 바다해설사를 신규로 양성하여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바다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령도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일반국민도 바다관광포털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 통해 바다해설사의 해설이 필요하면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담고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줄 바다해설사들을 쉽게 만날 그날을 기대해 본다. 

### 경향신문

2012년 07월 06일 금요일 029면 사람

## “더 아름다운 바다 여행, 이야기꾼 길잡이와 떠나세요”

영덕 바다해설사 김오현씨

경북 영덕의 김오현씨(60)는 주말에 별일이 없으면 영해면 대리리 해안 마을로 간다. 바닷속 수중 암석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청명한 색의 산호와 수중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 스킨스쿠버 등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바닷속에는 산호, 말미잘 등이 달라붙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저대 단애 조형물도 있다.

김씨는 스킨스쿠버 등호인들을 대상으로 영해 바다의 특성을 설명하고 폭은 아서 산생(1238~1350)의 출생지인 괴서리 진분마을을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기도 한다. 크리올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상대산에 관광객들과 함께 올라 아서 선생이 고대기 뛰어난 걸보고 고리돌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지명에 대한 유래와 이대역사 등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산소풍을 메고 스킨스쿠버 등호인들을 직접 바닷속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요청받고 영남대 외국인 유학생 80여명을 '날무도'(강구항에서



고리돌해수욕장에 이르는 50m가량의 해안 도로 여행길) 일부 구간으로 안내했다. 축신면 경명2리 대계원조마을(자유마을)에서 죽도산까지 해송출입과 갯바위길, 백사장항에 걸터 대계와 대계원조마을의 유래, 죽도산 주변의 생태, 인근 대소산 분수대의 역사 등을 설명했다. 유학생들과 함께 온 사진작가들은 '실명'을 들으

며 걸으니 영해의 바다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바다의 이야기꾼'인 바다해설사다. 지난 2010년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 실시한 '바다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촌의 인문·자연 자원을 해설·안내할 수 있는 인문·자연 인재를 양성, 어촌관광

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다해설사를 양성했다. 현재 전국에서 30명의 바다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경남 8명(남해 4명, 거제 2명 등), 부산 8명, 강원 3명, 전북 3명(군산 2명 등) 등이다. 경북은 영해에 2명이 있지만 1명은 현지 공무원에서 사실상 김씨 혼자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바다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스킨스쿠버도 배웠다. 관공객이 어촌어항협회에 요청하면 협회에서 해당 연안의 바다해설사를 연결해준다. 관광객들은 무료로 바다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회는 2010년에 이어 올해도 '바다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달 25일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해설사실(02-6036-0823)에서 40명가량의 희망자를 모집한다. 협회는 올해 바닷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에 바다해설사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에는 올린도도영, 관공객들이 보다 쉽게 바다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송태복 바다캠핑실장(41)은 "자차와 모객기, 관공객들이 바다해설사를 직접 호출을 하면 관공객 체험활동 등을 강화해나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영덕** **차승기** 기자 [stchoi@kyunghyang.com](mailto:stchoi@kyunghyang.com)